

광주시, 2100억원대 SRF 중재 일단 멈춤...상호협약의 돌입

강 시장, 포스코이앤씨·청정빛고을 대표 면담...25일 8차 심리 연기
시설운영비용 78억→2100억 과도한 변경...‘혈세 갈취’ 비난 여론
자율조정 시도 “운영비 인상은 손실 책임 시민들에 전가하려는 행위”

광주시와 사업자간 갈등을 빚고 있는 2100억원대 광주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시설 운영비에 대한 대한상사중재원의 심리가 잠시 멈추게 됐다.

‘혈세를 갈취한다’는 사업자에 대한 비난 여론 확산과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울 포스코이앤씨에서 SRF제조시설 운영사인 김호열 청정빛고을(주) 대표와 위탁관리업체인 정희원(주)포스코이앤씨 대표 등 SRF시설 관계자들과 이같은 결론을 이끌어냈다.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은 우선 오는 25일로 예정된 대한상사중재원의 8차 심리를 연기하고, 짧은 기간에 속도감 있는 상호 실무협의를 통한 자율조정을 시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심리절차 중단을 이끌어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이 SRF제조시설 운영비용 중재 절차 도중 신청금액을 78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과도하게 변경 신청한 것은 단순한 중재합의와 사업 협약사항의 문구적 해석 차원의 문제를 넘어섰다는 판단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광주시에 재정적 위기를 초래하고 시민들의 담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현안으로 변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권익보호를 위해 비공개·단심제로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합의에 의해 종료하고, 공개적이고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적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강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2023년 SRF제조시

설 운영비 관련 중재합의는 당시 나주시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중단됐던 SRF제조시설 및 청정빛고을의 조기 정상화와 광주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등을 위해 양측이 운영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최초 중재 신청했던 운영비를 2100억원까지 증액하는 것은 포스코이앤씨의 SRF 운영 손실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한 행위”고 거듭 지적했다.

앞서 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서구) 광주시당 위원장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모두와 광주 SRF 관련 진행상황과 쟁점 등을 논의했다.

양 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가 광주시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가는 중재 절차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를 대표사로 2013년 ‘청정빛고을’이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광역위생매립장에서 생산한 SRF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판매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가동 1년만에 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로 나주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청정빛고을이 생산한 SRF를 납품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4월 광주시에 78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고 이후 6차례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손실액을 2100억원으로 늘려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과도하다며 중재 중단 요청과 함께 소송을 통해 공적 판단을 받자는 입장이지만 포스코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건희 여사의 특검 출석을 하루 앞둔 5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웨스트 빌딩 앞에 통제선이 쳐져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 김건희, 오늘 출석...헌정 사상 전직 영부인 최초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의혹 등 집중 추궁

김건희 여사는 6일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펠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9명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 받았다.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착용한 고

가 목걸이를 재산 신고 내역에서 뺐 혐의,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도 김 여사의 첫 소환조사일인 6일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배로운(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선임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덴마크 동물원, 맹수 먹이로 반려동물 요청 논란

“수명 얼마남지 않은 동물 안락사 후 사용”...찬반 격론

덴마크의 한 동물원이 맹수 먹이로 반려동물을 기증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올보르 동물원은 페이스북북을 통해 맹수들을 위한 먹이 기증을 요청했다.

올보르 동물원은 가니피그나 토끼, 닭 등을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의 먹이로 기증해달라며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동물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물원 측은 기증된 동물은 숙련된 직원들에 의해 안락사된 뒤 맹수들의 먹이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고 포식자의 자연스러운 행동과 영양, 웰빙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려동물 기부를 통해 포식자에게 먹이를 통

째로 제공함으로써 자연의 먹이사슬을 모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올보르 동물원의 이 게시물은 곧장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일부에서는 “덴마크에서 동물에 대한 무관심이 끔찍한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반려동물을 먹이로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동물 기증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토끼를 기증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매우 멋졌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올보르 동물원 측은 논란에 대한 언급은 별도로 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수년간 육식동물에게 작은 가축을 먹여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시, 두자녀 이상도 ‘손자녀 돌보미’ 지원

9월24~26일 김대중 평화회의

전국 최초 지원 대상 확대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틈새 돌봄 사업인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8월부터 ‘손자녀 가족돌보미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까지 완화한다.

광주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미취학 아동(6세 이하)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인구소멸을 막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과 보건

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통해 지원 대상과 돌봄 제공자 범위를 넓혔다.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월 지원세대를 기존 200세대에서 400세대로 두 배 확대하고 지원자적도 낮춘 것이다.

광주시는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 또는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신

영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